2026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경아	8/2	[출발600]한·브라질 정상회담…"핵심광물·방산 긴밀 협력"강화 [뉴스초점] 장윤기 '성적 대화' 공개…아동성매매 최영중 조사	
김정원	8/9	[뉴스투나잇] '검사는 최소 4급' 중수청 청사진…'개문발차' 우려 여전 [뉴스 오늘]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반년…고충은 여전	
안지연	8/16	[뉴스잇] "검사 수사 못하면 내 사건은?"…로펌 문의 빗발 [뉴스현장] [단독] K-축구 혁신위 생중계 전환…풀뿌리 축구 민낯 '파묘'	
김홍태	8/23	[뉴스잇]남양주·강서 '신규택지' 기대…토지 보상 '관건' [와이드11]'가계부채 2천조원' 시대 진입…증가 속도 빨라져	
김경아	8/30	[뉴스포커스] 태풍 3개 북상하지만…우리나라는 찜통 폭염 [뉴스프라임] 내년 '800조+α' 슈퍼예산…당정 "미래 먹거리에 집중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활동	김경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26. 02. 20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6 8/2(일)	김경아	[뉴스초점] 장윤기 '성적 대화' 공개…아동성매매 최영중 조사 김유동 보도는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대담 형식으로 짚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과거 장윤기와 나누었던 사적인 성적 대화 내용이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진 파장과 범죄 혐의 간의 관련성을 다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수사 대응 방식,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 그리고 향후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 및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수사 전망에 대해 전문 패널과의 질의응답으로 상세히 진단했습니다. 본 보도는 복잡하게 얽힌 수사 구도와 법적 쟁점을 뉴스초점에서 대담 형식을 통해 전문가의 정돈된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성적 대화 공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해당 정황이 실제 아동 성매매 혐의 입증에 법적으로 어떠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법적 절차와 증거 능력 판단 기준을 짚어내면서 사법적 쟁점을 밝히는 데 집중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자극적 대화 내용이나 사생활 영역의 정황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보도 윤리적 경계선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수사 보도에서 피의자 나 주변 인물의 자극적인 메신저 대화 구절을 구체적으로 언급 할 때는 시청자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자극적인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가능한 선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덜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담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간혹 이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범죄, 특히 미성년자들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만큼 이를 더 집중적으로 다뤄 경계심을 일깨울 수 있는 보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울러 수사 상황 중계나 인물 간 공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및 성매매 범죄의 지능화된 수법을 경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공익적 제도적 감시 저널리즘으로 논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민감하고 자극적인 보도일수록 비판적 균형 감각이 보강되기를기대합니다.	
2026 8/9(일)	김정원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반년…고충은 여전 송고2026-08-02 10:42 이지윤 기자 이 보도는 동행 취재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허점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각기 다른 고충을 담아 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만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실제 이용 환경에서 어떤 추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리포트는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후속 리포트에 고려하겠습니다.
2026 8/16(일)	안지연	[단독] K-축구 혁신위 생중계 전환…풀뿌리 축구 민낯 '파묘' 조한대 기자 송고2026-08-12 14:36 이 보도는 K-축구 혁신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비공개 회의 이후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차이를 설명해 공개회의 전환의	'K-축구 혁신위 생중계 전환' 보도는 복수의 혁신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안으로 작성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번 '유소년 육성' 주제 회의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현장의 생생한 불만과 각종 비위 사례가 노출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의미를 잘 전달했습니다. 다만, 보도 제목에서 사용한 풀뿌리 축구 민낯 '파묘'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보도는 이번 회의가 유소년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정작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서 제기돼 온 구체적인 문제나 비위, 불공정 사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만큼 각종 비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감춰진 문제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 만큼, 관련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다뤘다면 보도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들 역시 이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기존 유튜브 생중계 계획을 KTV 생중계로 격상·변경한 것도 최휘영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으로, 현장의 파급력 있는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취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축구계 내부에서는 생중계 노출과 실명 폭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참석을 번복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감춰진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현장의 긴장감도 감지했습니다. 실제 회의에서도 지도자의 학생 폭행 등 유소년 시스템 내 비위 관련 발언이 일부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건(2018년 경기 한솔FC 아동폭행 사건 등)은 이미 징계 조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사 작성 시 별도 언급을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목의 '파묘'라는 표현은 회의 전반에 형성된 문제의식과 생중계 전환의 파급력, 그리고 축구계 내부의 긴장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지적해주신 점을 참조하여 향후 보도에서는 수위 조절과 구체적 사례 제시를 더욱 보완하겠습니다. [참고: 회의 내 관련 언급

			기록] ▲2018년 경기 한솔FC 아동폭행 사건: 지도자가 학생 9명의 뺨과 엉덩이를 몽둥이로 폭행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 언급. ▲심판 판정 불공정 문제: 참석 학부모가 심판 평가제 필요성과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생방송 특성상 직접적 실명 언급은 자제함.
2026 8/23(일)	김홍태	'가계부채 2천조원' 시대 진입…증가 속도 빨라져 구하림 기자 송고2026-08-16 13:12 이번 방송은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말 가계신용이 약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수치를 제시해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택 거래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가계신용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짚은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계신용이 정확히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지, 즉 가계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보강되면 좋았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항목이 증가했는지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제시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방송에서는 총액외에 전년· 전분기 대비 증가폭, 가계소득 대비 부채 수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함께 설명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들도 다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때는 가계부채가 2천조원을 넘는 시대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해 시청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과 연결해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규모 증가만으로 불안해하기보다 는 무리한 대출이나 레버리지 투자에 신중하고,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6 8/30(일)	김경아	태풍 3개 북상하지만…우리나라는 찜통 폭염 김동혁 기자 입력 2026-08-25 09:33 보도는 서울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되는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염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쪽 찬 공기 유입과 잦은 비로 폭염이 차차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짚었습니다. 이어 서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태풍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20호 태풍 '개나리'가 소멸한 데 이어 18호 '사우델', 19호 '나라', 21호 '앗사니' 등 3개 태풍이 북상 중이지만, 한반도 남쪽 폭염고기압의 장벽에 막혀 우리나라를 비껴가 중국과 괌 인근으로 향하거나 세력이 약화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보도는 늦여름 폭염과 다중 태풍 북상이라는 자칫 복잡하고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명쾌하게 해설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왜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가"라는 시청자들의 본질적인 궁금증을 '폭염고기압의 장벽 효과'로 쉽게 풀어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태풍별 예상 진로와 향후 강수 전망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태풍 공포심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상	알기 쉬운 기상 보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는 이번 네팔 대지진에서 보듯 모두가 좀 더 신경써 보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등이 소강한뒤 기상팀이 기후 변화에 대한 집중 보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예보 전달에 치중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 신호를 짚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극한 열대야와 태풍의 동시 다발적 발생은 기후 시스템의 심각한 교란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다는 결론도 중요한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 위험이나 국지성 호우 가능성, 그리고 장기화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취약계층 온열질환 관리 실태를 함께 짚어주었다면 저널리즘의 공익적 책무를 한층 더 완수했을 것입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8. 0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자원 강국이자 남미의 거점국인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브라질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부터 방산 및 우주항공 협력까지 경제 안보 영역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중남미 외교 지평을 넓히는 정상 외교의 성과를 연합뉴스TV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브라질리아에서 성대하게 열린 의장대 사열 등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현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심 광물인 희토류 공급망 협력 확대와 올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브라질 C-390 수송기에 한국 기업 부품이 탑재되는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조명했습니다. 이어 민간 발사체 절차 간소화 등 우주항공 분야 협력,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추진 공감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확인 등 총 7건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를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이 상파울루에서 열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는 일정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도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라는 브라질의 자원적 가치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안보적 성과를 자세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브라질 수송기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방산 협력 사례나 우주항공 민간 발사체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산업 연계 팩트를 조목조목 제시함으로써 정상 외교가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에 가져올 실질적 이점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본 리포트는 행정부 발표 중심의 외교 성과 보도에 치우쳐 저널리즘 고유의 비판적 해설과 검증 기능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예컨대 7건의 MOU 체결이나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감대 형성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실을 맺기까지 넘어야 할 실무적 난관과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남미 지역의 정세 변화나 거대 자원 보유국들과의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성찰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외교 합의안의 실효성을 예리하게 검증하는 심층 리포트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청년 세대에게 점점 더 오르기 힘든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집값 상승의 이중고 속에서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결국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핀셋형 대출 완화책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연합뉴스TV는 본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진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역대 처음으로 30% 선 아래로 추락하고, 50대와의 자산 주택 보유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통계로 포문을 엽니다. 이에 청년층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실태와 함께, 지난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형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검토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외 방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가능성 등 구체적인 금융 정책 대안을 짚었습니다. 끝으로 연령 중심의 지원책에 대한 반론과 함께 "나이라는 조건보다 상환 능력 중심의 DSR 규제 등 단순화된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제언을 실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간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청년 주택 보유율 30% 붕괴라는 구체적인 통계 지표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이라는 연령 기준으로 편가르기식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정책적 사각지대와 반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제학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DSR 규제 개편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까지 다각도로 모색함으로써 보도의 깊이와 공익성을 높인 점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본 보도는 청년 주거 난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보다 대출이라는 금융 기술적 해법에 보도의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 급락은 단순히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자산 가격과 청년 일자리의 질적 악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자칫 영끌 투자를 다시 부추기거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경고음은 부족했습니다. 향후 후속 보도를 통해 대출 완화라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검증 보도가 필요합니다. 109시간이 넘는 긴 사투 끝에 마침내 불길이 잡힌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완진 닷새 만에 첫 합동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 등 진입 안전점검을 마치고 수사 당국과 국과수 등이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인데요. 반복되는 대형 물류 시설 화재라는 참사 속에서, 연합뉴스TV는 본 사안의 현장 상황과 쟁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현장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 생생히 전했습니다. 화재 발생 109시간 40분 만에 완진되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화재로 기록된 이번 참사의 엄중함을 짚고, 안전진단을 마친 뒤 오전 10시부터 경찰,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이 시작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층 물품 선반 및 전기 시설, 적재물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쿠팡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5년 전 발생했던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례 등을 참고해 초기 대응의 적절성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음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도는 붕괴 위험으로 진입이 지체되었던 현장 소식을 취재기자 수화창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현장감 있게 타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109시간 40분이라는 구체적인 진화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장기 화재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냄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감식 전 구조기술사 동행을 통한 건물 안전점검 절차가 선행되었다는 점과 6층 선반이라는 발화 추정 지점, 경찰의 수사 대상 및 과거 사례와의 연계성까지 조목조목 짚어주어 시청자들에게 후속 수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충실한 정보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본 보도는 현장 중계와 당국의 감식 스케줄을 받아 적는 수동적 뉴스 프레임에 그쳤습니다. 5년 전 덕평 물류센터 참사와 판박이인 화재가 또다시 되풀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류센터의 대형 화재 방지 대책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관련 제도적 개선안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저널리즘적 비판과 추적 의식은 부재했습니다. 단순히 감식 일정과 수사 발표를 중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의 구조적 원인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예리하게 검증하는 심층적인 감시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물러가자마자 한반도를 습격한 것은 숨 막히는 열파였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전격 확대 발령되고,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의 고온화 현상이 우리 삶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으로 자리 잡은 지금, 연합뉴스TV는 이러한 폭염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무인 기상 관측소가 설치된 대구 동구가 39.2도, 경주가 39.1도를 기록하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는 소식으로 포문을 엽니다. 밀양, 창원, 양산 등 영남 지역을 덮친 극한 폭염의 실태와 함께, 전국 기상특보 구역의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엄중한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예보분석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의 폭염중대경보 발령 현황 및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내륙 지역의 기습적인 소나기 및 벼락 돌풍 가능성을 경고하고, 주 후반 10km 상공에서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어 한반도가 강력한 열돔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대구, 경주 등 지역별 최고 기온 수치와 함께 전국 95% 지역 특보 발령이라는 내용으로 재난 수준에 도달한 폭염의 전면성을 시청자에게 신속하고 유용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낮의 열기로 인한 소나기 및 돌풍 벼락 위험 등 2차적인 기상 위험 요소까지 놓치지 않고 짚었구요 기상청 인터뷰와 전문 용어 해설을 통해 주 후반 한반도를 덮칠 열돔 현상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경고하여 시청자들이 본격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익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본 보도는 기후 재난 보도가 빠지기 쉬운 관성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는 상투적인 기상청 당부나 개인 차원의 건강관리를 반복하는 데 그쳤는데요, 특히 39도가 넘는 극한 폭염 속에서도 야외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건설·물류 노동자나 고령 농업인, 에어컨 없이 더위를 견뎌야 하는 쪽방촌 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의 현실을 비추는 사회적 시선은 없었습니다. 기온 수치를 중계하고 개인의 주의를 요하는 당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야외작업이 중지되는 작업중지권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거나, 에너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등 현장감 있고 비판적인 재난 보도로 저널리즘의 지평을 넓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8. 0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약 3천 명 규모로 현직 검사를 최소 4급 수사관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준비 기간을 두고 개문발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수청 총 정원은 2,874명으로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경력에 따라 1~4급으로 배치됩니다.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감찰관, 인권보호담당관도 설치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청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이 얼마나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미지수인 데다, 임용 희망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초기 수사 인력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자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우선 경찰청 시스템을 개편해 활용하기로 했고, 일부 지역은 아직 청사 준비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개문발차 우려까지 균형 있게 담아냈습니다. 한편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 합류를 꺼릴 경우 초기 수사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구체적으로 담겼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인력 공백이 실제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보완할 대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했다면 개문발차 우려를 더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제 부활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와 법체계 모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미비점 보완을 약속하며,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7대 범죄에 전건송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 다시 살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싱 같은 민생범죄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경우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송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도 모순점이 적지 않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를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복된 진술 요구로 인권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검사의 사실 확인 조항이 실무에서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최대 190건에 달하며, 여당은 10월 국정감사 전 보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보도는 전건송치제 도입의 한계와 형소법 개정안의 모순점을 전문가 의견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쟁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 점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최대 190건에 달하는 법률 정비를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충분한 논의 없이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더욱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은 여전한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햄버거 가게를 찾은 지체장애인 이진희씨는 입구 계단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약 20cm의 계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넘기 어려운 높이로, 키오스크가 있어도 가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 위치 자체를 찾기 어렵고, 50㎡ 미만 소규모 매장에서는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부르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는 고충이 이어집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반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진정만 50건에 달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만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동행 취재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허점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각기 다른 고충을 담아 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만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실제 이용 환경에서 어떤 추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메모리에 이어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설립된 중국 국유기업 아이성나가 반도체 핵심 설비인 노광장비 자체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자외선 장비 양산에 성공할 경우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네덜란드 기업 ASML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창신메모리의 대규모 기업공개에 이어 '반도체의 쌀'로 불리는 부품 MLCC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은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장악력을 넓히며 소재·부품·장비 전 분야에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41.5%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범용 제품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 둔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장의 생산 능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 보도는 창신메모리 기사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소부장 분야 추격까지 연이어 조명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한편 미래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담았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위기의 진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의 무게를 더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세금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를 고민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문 앞에 안내글까지 붙였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도를 적극 고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2029년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매도 외에 증여나 상속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

3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35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는 오르지만 양도세 제한을 받지 않아 매물 증가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된 만큼 절세 매물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임대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일부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보도는 세제 개편안이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현장 인터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매물 증가 기대와 전월세난 심화 우려를 함께 담아 정책의 양면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디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세 부담 강화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향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함께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이 정책의 전체 그림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얼음물 하나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폭염에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창신동 쪽방촌 주민들은 아침부터 얼음물 한 통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좁은 골목 곳곳에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지만 습한 날씨에 더위를 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쪽방상담소는 얼음물과 생수,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하루 두 차례 골목을 돌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뿐 아니라 폐지를 주우러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에게도 이번 여름은 가혹합니다. 온열질환 우려를 알면서도 하루 생계를 위해 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폭염 중대경보 속에서도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삶이 이번 여름 더욱 혹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쪽방촌 주민과 폐지 수거 노인의 현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며 폭염이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날씨 보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한편 쪽방상담소의 지원 활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충분한지를 함께 짚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쿨링포그나 얼음물 제공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나 생계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면 보도가 더욱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6. 08.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형사사법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 등 현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갑자기 공백이 생길 경우,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는지 의뢰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형소법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겨야 하고,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이 맡아 마무리 하는 경우에도 90일이란 시한이 생겨 사건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했던 의뢰인들은 검찰에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검사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한동안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제도 변화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는 형사 사법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인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실제 관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뤘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변화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인터뷰를 덧붙여 보도의 신뢰를 높였고,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도가 변호사와 의뢰인들의 우려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도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 측의 입장이나 제도 변화 대비 상황도 함께 살펴봤다면 시청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면서 효율적인 냉방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며, 7, 8월에는 450킬로와트시를 초과하면 가장 높은 누진 3단계가 적용됩니다. 누진 2단계 상향인 450킬로와트시 사용 시 8만 원대였던 전기요금은 3단계인 495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 10만 원대로 급증하고, 만약 사용량이 1천킬로와트시를 초과하면 슈퍼유저 요금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은 29만원을 웃도는 등 요금 폭탄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전기요금 절약 방법도 소개했는데요, 단순히 에어컨 사용 시간만을 줄이기보다 기기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속형은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가며 쓰는 것이 유리한 반면, 인버터형은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껐다 켰다 하기보다는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을 닫거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커튼과 블라인드 등을 활용해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보도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과 절약 방법을 다뤘습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담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보여줬는데요, 누진 구간별 사용량과 요금 차이를 실제 금액으로 제시해 전력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부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절전을 권하기보다, 냉방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에어컨 사용 방법에 따른 전력 소비의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정속형과 인버터형 에어컨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동했을 때,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실험 장면을 보여주거나,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각각의 사용법이 효율적인 이유를 덧붙였다면 시청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재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삶의 질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 점수는 5.99점으로 중위권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 영역에서 1위, 지식·기술 영역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사회적 연결은 뒤에서 2번째인 37위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거 평가는 전국 평균 임차·유지비를 기준으로 산출돼 주택대출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36위에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단순한 종합 순위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영역의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영역별 지표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거 평가의 경우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이번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인 만큼,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나 친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세부 지표를 함께 소개했다면 결과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결과가 나타난 배경이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다뤘다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서 어떤 부분을 보다 살펴봐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장 선출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축구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논의를 이어온 K-축구 혁신위원회가 회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요, 이제는 무관심속에 방치됐던 한국 축구의 뿌리인 현장으로 시선을 넓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7차 회의는 축구 경기인과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청회로 진행되고 유소년 선수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위원들 간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축구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만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장의 각종 비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K-축구 혁신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비공개 회의 이후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차이를 설명해 공개회의 전환의 의미를 잘 전달했습니다. 다만, 보도 제목에서 사용한 풀뿌리 축구 민낯 '파묘'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보도는 이번 회의가 유소년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서 제기돼 온 구체적인 문제나 비위, 불공정 사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만큼 각종 비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감춰진 문제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 만큼, 관련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다뤘다면 보도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6. 08.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뉴스잇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장은 계획대로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택지로 새로 지정된 남양주와 서울 강서 등은 어떤 분위기인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신규 택지 후보로 발표된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 나갔는데요, 이 드넓은 땅은 수십 년간 고려대 학생들의 실습 연구 장소이자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쓰여왔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1천호에 달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설득, 기반시설 조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이 과정을 얼마나 신속히 풀어내는냐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석준 경기도 남양주시 공인중개사는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많았는데 여기가 강남 인근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베드타운이라면서,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이 늘면 굉장히 지역이 발전할 것 같다면서, 과거 양정역세권 개발 때도 토지 수용 당한 사람들이 강력한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보상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택을 지어 공급하더라도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부 쪽에 '선교통, 후입주'를 강하게 요구 했었고 광역교통대책을 입주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천 호 공급 계획이 나온 서울 유일의 택지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문제는 이 일대 90% 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신동관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는 워낙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면서, 소유자들끼리 협의가 안돼 지금 상태로 온 거라면서, 방치된 상태니까 차라리 깨끗한 주거지가 생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8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제 입주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해 보인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단순히 발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신규 택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과 중개업자의 반응, 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함께 전달했다는 점이 잘된 부분입니다. 특히 남양주 와부읍과 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의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공급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동의, 교통망 확보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짚은 것도 균형 잡힌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택지 지정이 곧바로 주택 공급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 지정 이후 지구계획, 토지보상, 인허가, 착공, 분양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 예상 일정과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공급 물량이 지역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약간은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발표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률을 지속적으로 비교·점검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고요, 특히 교통·학교·생활 편의시설이 주택 공급과 함께 제대로 마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들도 발표된 공급 물량만 보고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개발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과 보상·교통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주 와이드11에서는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원대에 들어섰다는 추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천조원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된다면서, 올해 1분기 말 잔액은 약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했습니다. 가계신용 규모는 최근 주택 거래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말 가계신용이 약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수치를 제시해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택 거래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가계신용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짚은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계신용이 정확히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지, 즉 가계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보강되면 좋았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항목이 증가했는지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제시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방송에서는 총액외에 전년· 전분기 대비 증가폭, 가계소득 대비 부채 수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함께 설명해 시청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규모 증가만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무리한 대출이나 레버리지 투자에 신중하고,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뉴스리뷰에서는 청년들이 월세 수준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내놨는데요, 청년들의 반응이 싸늘하자, 금융당국이 청년들에 비아파트를 구입할 추가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긴급 해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정책모기지상품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통상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면서 "청년들은 빌라에만 살라는 거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긴급 해명에 나섰는데요, 금융위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출시가 자가 마련을 위한 틈새 시장, 이른바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중에서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빌라 매수를 원하는 틈새 시장도 있는 만큼 이러한 수요를 배려했다며, "기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정책적 혜택은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3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인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대신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가장 큰 제약이라면서도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쉽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지적에는 "이런 수요가 있는 청년을 돕겠다는 취지"라며,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청년 주거 문제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소개하면서 정책의 취지와 청년층의 실제 반응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실수요자에게 빌라나 오피스텔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금융당국의 해명을 함께 소개해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보여준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연간 3조 원 규모의 공급 계획과 LTV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

장까지 설명해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대출금리, 최대 대출한도, 소득·연령 기준, 대상 주택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함께 제시하고,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격 차이 등도 정책 대상 주택과 관련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후 실제 신청자와 수혜자의 반응, 상품 이용률, 지역별 수요 등을 보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정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제 도움이 됐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평가한다면 방송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저리 대출'이라는 장점만 보고 주택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능력, 주택의 입지와 환금성,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 등을 충분히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주 가보자Go에서는 광복 81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뉴스캐스터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현장에 나가서 보도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은 1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 축제가 한창인데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옥고를 치른 이곳에서, 16일까지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5만 명이 찾은 대표 역사 문화 축제로 올해는 '광복의 빛으로 하나 되는 서대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축제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형무소 이야기부터 광복의 길 챌린지, 광복 스탬프 랠리까지 30여 개 전시 행사가 운영됐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여옥사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만날 수 있고요. 독립공원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표정이 환희로 바뀌는 특별한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저녁 7시에는 기념식과 함께 가수 박정현, 손승연의 무대가 펼쳐지고, 국악과 태권도 공연도 진행됐으며, 축제 기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무료로 개방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광복 81주년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는 상징적인 현장을 연결해 현장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 모습과 축제 규모, 주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자들이 축제의 분위기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홀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소개해 역사교육과 문화행사가 결합된 모습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겪었던 고난과 희생,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등을 간략하게라도 덧붙였다면 조금 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프로그램의 특징과 함께 시민들의 실제 참여 소감이나 젊은 세대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인터뷰했다면 더욱 풍성했을 것입니다. 이 축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치른 희생과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8.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7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8월 하순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등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에서는 무려 3개의 태풍이 잇따라 북상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뒤덮은 견고한 폭염 고기압에 가로막혀 비껴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기상 이변 속에서 연합뉴스TV는 늦여름 폭염과 태풍 경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서울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되는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염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쪽 찬 공기 유입과 잦은 비로 폭염이 차차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짚었습니다. 이어 서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태풍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20호 태풍 '개나리'가 소멸한 데 이어 18호 '사우델', 19호 '나라', 21호 '앗사니' 등 3개 태풍이 북상 중이지만, 한반도 남쪽 폭염고기압의 장벽에 막혀 우리나라를 비껴가 중국과 괌 인근으로 향하거나 세력이 약화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보도는 늦여름 폭염과 다중 태풍 북상이라는 자칫 복잡하고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명쾌하게 해설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왜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가"라는 시청자들의 본질적인 궁금증을 '폭염고기압의 장벽 효과'로 쉽게 풀어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태풍별 예상 진로와 향후 강수 전망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태풍 공포심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상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예보 전달에 치중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 신호를 짚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극한 열대야와 태풍의 동시 다발적 발생은 기후 시스템의 심각한 교란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다는 결론도 중요한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 위험이나 국지성 호우 가능성, 그리고 장기화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취약계층 온열질환 관리 실태를 함께 짚어주었다면 저널리즘의 공익적 책무를 한층 더 완수했을 것입니다. 국가 예산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미래 전략이 집약된 설계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역대 최대인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AI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지방 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았는데요.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선언한 이번 당정 협의 결과를 연합뉴스TV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0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당정 협의 결과로 시작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및 첨단 AI GPU 1만 장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어 2030년 달 착륙 R&D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편성,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와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등 청년·미래 세대 지원책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및 외환위기 공적자금 채무 잔여분 상환 계획까지 폭넓게 담겼음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본 보도는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슈퍼 예산안의 방대한 내용을 'AI·전략산업', '청년·복지', '지역 균형 발전' 등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핵심 축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조화하

여 전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세수를 일회성 지출이 아닌 기금 신설로 흡수하겠다는 재정 안정화 장치의 의도와 GPU 1만 장 공급, 지방 국립대 무상 교육, 1997년 외환위기 공적자금 채무 청산 등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팩트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 정책 전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당정의 예산안 발표를 그대로 소개하는 '정책 브리핑식 받아쓰기' 에 머문 한계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 초팽창 예산 편성에 수반되는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나, 반도체 착시 효과가 걷혔을 때 중장기적 세수 결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진단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 국립대 전액 무상화나 핵잠수함 개발 지원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과 야당의 입장,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짚어주지 못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비판적 저널리즘이 보강되기를 기대합니다. 증시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가계의 지갑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민감한 경제 지표입니다. 최근 국내 주가 조정과 누적된 물가 부담의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5달 만에 꺾였는데요.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의 숨 고르기 신호를 연합뉴스TV는 어떻게 해석하고 진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104.5를 기록하며 넉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로 시작합니다. 이는 경기 전반의 급격한 악화라기보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6,000~7,000선 등락 등 주가 조정과 고물가 누적이 복합적으로 가계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라는 분석을 한국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125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져 5달 만에 상승세가 꺾였음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이 심리적 진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끝으로 2분기 1인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8·13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3분기 자금 흐름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본 보도는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시각적 그래픽과 수치로 화면에 배치해 시청자가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그 자체보다 주가 조정과 누적된 물가 부담이 심리를 짓눌렀다"는 한국은행의 다각적 분석을 전달해 경기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전망지수의 하락을 단순 하락세로 단정 짓지 않고 "여전히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숨 고르기 국면"이자 "8·13 대책 이후 대출 여력 확대로 다시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부 분석을 곁들여 시장을 균형감 있게 짚어낸 점이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이 실제 골목상권 매출 감소나 내수 부진으로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인터뷰나 스케치가 없어서 기사의 현실 체감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본 보도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얻으려면 실물 경제에서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현실이 생생히 담아져야 합니다. 또한 8·13 대책으로 인한 대출 여력 확대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자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의 냉철한 비판적 진단을 덧붙이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법인 명의를 악용해 회사 자금으로 초고가 주택을 사들이고 사주 일가가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른바 '황제사택' 실태가 국세청 전수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이 사적 유용에 쓰였고, 탈루 혐의 액수만 1조 9천억 원에 달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공정과 조세 정의를 흔드는 이번 사안을 연합뉴스TV는 어떻게 진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음식·숙박업 대

기업이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고 100억 원대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한 뒤 사주 일가가 거주한 사례로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00여 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나 사용에 쓰였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 법인이 사주 자녀를 위해 서초구 반포동의 40억 원대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사례, 2주택자가 된 사주가 기존 주택을 법인 소유로 돌려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긴 편법 사례, 직원 복지를 빙자한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 사유화 등 주요 적발 유형을 짚었습니다. 끝으로 50개 업체의 탈루 혐의액이 1조 9천억 원에 이르며, 국세청이 자금 출처 추적과 함께 해외 사택 및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유용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인터뷰와 함께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황제사택'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고발 용어를 200억 한남동 주택 매입, 반포 40억 아파트 자녀 무상 제공, 1세대 1주택 비과세 편법 악용 등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해설했습니다. 특히 2,600여 채 전수 점검 중 40% 이상 사적 유용, 탈루 혐의액 1조 9천억 원 등 검증된 통계 데이터를 그래픽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했구요, 국세청 조사국장의 인터뷰로 향후 자금 출처 추적과 사주일가 전반으로의 조사 확대 계획까지 단계적으로 전달한 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본 보도는 국세청의 보도자료와 적발 사례 브리핑을 나열하는 단순 고발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주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세법상 업무용 자산 인정 기준의 허점' 또는 '사적 유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위'를 짚는 저널리즘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 주택 취득 및 유지 비용 처리에 대한 감시 시스템 강화 방안이나 배임·횡령죄 적용 등 형사 처벌 연계성을 함께 짚어주었다면 조세 정의 실현과 법인 거버넌스 투명성을 촉구하는 심층적인 저널리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입추와 처서가 지났음에도 꺾이지 않는 늦더위 속에 학교와 병원, 군부대 등에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위생 문제로 적발됐던 급식업체들이 또다시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서 집단 급식의 위생 안전망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늦여름 식중독 위험과 반복되는 관리 부실 실태를 연합뉴스TV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여수 중학교의 급식 중단 사태, 대구 종합병원 내 김밥집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공군 훈련병 수액 치료 등 최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속출한 집단 식중독 사례를 짚으며 시작합니다. 처서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와 함께, 통계상 식중독 발생이 한여름보다 9월에 가장 많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식약처가 과거 위반 이력 등이 있는 '요주의' 집단 급식소 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적발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 불량, 역학조사용 보존식 미보관 등의 행태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식약처 국장의 엄격한 관리 방침 인터뷰와 함께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및 6개월 내 재점검 계획을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한여름보다 오히려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적 팩트를 전면에 제시해 계절적 방심을 경계하고 시청자들의 보건 위생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일깨웠습니다. 특히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실제 발생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체감도를 높였으며, 단순 위반이 아닌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상습 위반 업체들'의 재적발 실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집단 급식 관리의 구조적 맹점을 짚어낸 점이 우수합니다. 소비기한 경과, 보존식 미보관 등 핵심 위반 유형을 명확히 전달해 정보의 실용성과 공익성을 충실히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본 리포트는

상습 위반 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나 구조적 대책을 깊이 있게 따져 묻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규정을 어길 수 있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과 일시적 점검에 그치는 느슨한 행정 처벌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내 재점검"이라는 식약처의 원론적 대책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상습 위반 급식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입찰 자격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문가 제언과 함께 촉구했어야 합니다. 대규모 취식 환경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감시망을 점검하는 심층적인 저널리즘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8월 2일 04시/ 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8월 9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8월 1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8월 23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8월 30일 04시/ 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